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곳, 연리지공동체

리_김 세 실 리 아 · 광주쉼터 운영요원

상처입은 두 그루의 나무가 진액으로 동치가 붙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자라난다는 연리지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감염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힘을 모아 굳건하게 살아 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광주쉼터다.

우리 집은 쉼터지만 쉼터 같지 않고 형님, 동생,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대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는 가정공동체이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 상을 차리며 율놀이·영화관람을 하는 등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 광주 시내에 있는 「요셉의 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하여 위로하기도 하였다.

광주쉼터는 말씀의 선교수도회 신부님 두 분과 운영요원(사회복지사) 그리고 방학 때 쉼터를 방문하는 수사님들이 감염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소중한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며 살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형제가 되라’는 신부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

집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여기를 거쳐 갔던 모든 이들을 식구라 생각하고 있다. 쉼터를 떠나 자립하여 살고 있더라도 가족들에게 안부전화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행사에는 그들을 초대하기도 하는 등 항상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식구들도 쉼터를 단순히 요양센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곳으로 인식해서인지 최근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취직이 되어 사우나 티켓을 가지고 와 모처럼 기쁜 시간을 가졌었다.

가족회의 중 3분은 긍정적인 대화만

이곳 쉼터에는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이 두 분 계시지만 누구도 그들로 인해 힘들어 하지 않고 두 분 역시 나들이 등 행사에 단



▲ 쉼터 내부 전경들

한 번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정신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누가 너보다 잘 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신부님의 가르침에 기인한 이유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통해 그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의논한다. 그 시간에는 "칭찬하기,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등 긍정적인 대화를 반복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3분 대화시간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자활 사업을 하면서 자립금을 모으는 가족

지난해부터 까리파스수녀회의 지원을 받아 여러 가지 소모품을 만들어 각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김○○ 씨는 자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월 적금을 붙임하며 기쁘게 살고 있다.

추석을 전후해서 약간의 공백은 있었지만 작업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봉사자를 발굴하고 후원회를 조직하였다. 노동의 보람을 통해 감염인은 HIV·에이즈에 감염되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감을, 후원인을 포함하여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식구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희망을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집에서 살다 나간 박○○씨는 글쓰



상처입은 두 그루의 나무가 진액으로 동치가 붙어 한 묶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자라난다는 연리지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감염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힘을 모아 굳건하게 살아 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광주쉼터다.

기를 좋아하고 늘상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다. 어쩔 수 없었던 지난날을 원망하기보다는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잠깐 동안 한 눈을 팔았다며 내일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는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며 충실히 살아야겠다고 말하곤 한다. 그의 긍정적 태도에 우리 가족은 자책하지 않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워 열심히 일하고 운동도 하는 등 희망을 향하여 살고 있다

가족 사랑 나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곳

우리 집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식구들의 자활이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나 직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부님이 직접 상담하여 그들을 돕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작지만 사랑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건강한 신○○씨와 운영요원이 함께 양로원을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바자회에 참석하여 하루를 보내고 왔다.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참 행복했다.

광주쉼터의 건강한 감염인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정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이다